

# 페르시아 복음방송 연합가족

## 2015년 7월 편지.

하나님의 평강이 주안에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들 매일의 삶과 공동체 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영국 일정-영화 더빙. 지난 5월말 저는 영국 레스터의 앞간국 출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복음적인 영화들을 더빙하는 일을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바닥 짧은 이메일을 드렸습시다만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주요배역으로 동참한 앞간국 출신 형제자매들은 6명이었고 그외에 20여명의 앞간국형제들이 군중소리로 참가했고 그외 다수의 앞간, 이란형제들을 영국의 교회에서 만날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형제들의 고향은 현재 무장반군들의 주요거점이 되어버린 앞간국 중남부 지역 이었는데 여전히 고향을 무척

<제옆 V 손가락 형제가 전도자 형제입니다.>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화더빙을 통해 전란에 휩싸인 고향을 남 몰래 떠난 앞간국 형제들이 목소리로 고향으로 복음전하는 사역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제눈에 보기에 이형제들은 ‘이때를 예비 하기위해’ 미리 이방땅에서 어려움을 당한 수 많은 요셉들처럼 보였습니다. 이번 작업을 마무리한 후 형제들은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기원한다’, ‘영화 더빙 기술을 가르쳐줄수 있냐?’ 라고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형제들이 갓들이고 있는 교회는 오순절계통의 성장하고 있는 영국교회로 이민자들과 난민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2-30여명의 앞간국과 이란 형제자매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테이블들과 담요로 이용해 만든 간이 녹음 부스>

맨처음 예수님을 믿은 전도자 형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울증이 떠나가고 삶이 변화된것을 증거했을때 동료앞칸들에게 매를 맞고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욕하며 때렸던 형제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진:형제들과 군중소리 녹음중>

무슬림출신의 이민자들 혹은 난민들에게 복음전하는 일을 너무 거창히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것 같습니다. 얼마간의 일시적인 갈등은 있었지만 한사람씩 교회에 나와보면서 조건없는 섬김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오래된 우울증이 떠나가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면서 결국 모임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제는 10년을 난민으로 영국에 머물렀는데 전쟁은 피했지만 학교를 다닌적없는 무학으로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받을수도 없어서 영국에서 오랫동안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재봉틀 다루는 기술을 동료들에게 배워서 옷공장에서 일하다가 먼저교회나와본 앞칸 친구들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역시 예배가운데 우울증이 떠나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예배후 서로 문안하는 형제들을 뜻하지않게 뒤에서 엿들었습니다. ‘고향의 가족들, 부모님은 잘 계시냐?’응 얼마전에 통화했는데 전투는 계속 벌어지는데 다치지않고 잘계신데,,,그리고,,,뭐,,,이교회사람들이 나한테 가족이야!^^ 이렇게 많은데^^’.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교회가 나그네들과 이웃들과 이민자들을 먼저 섬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진:형제들의 가정에 초대받고 함께 앞칸음식- 커블리 팔라우, 호르마, 번준루미, 살란, 머스트를 먹으며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이번에 영국의 앞칸형제들이 알려준 영화가 있습니다. 정확히 자신들같은 난민들이 육로를 통해 중동으로부터 유럽을 지나 영국까지 지나온 밀입국 여정을 영국 BBC 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로 제작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검색하실 제목은 'In this World'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hR-w5b-LYg>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기때문에 출연한 배우들은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 2. 성찬식.

제가 방문했던 그주간의 주일은 성찬 주일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성찬식은 보다 덜 현대화(?)된 성찬식 이었는데 교회 여러군데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덩어리빵과 포도주 병들과 몇개의 큰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찬양을 드린후 말씀을 듣고 나서 성찬식 순서가 되었습니다.

차분히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회중은 가족별로 혹은 개인별로 테이블로 나아가 각자의 손으로 빵을 뜯고 큰잔에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 찬양을 드리며 상 앞으로 나아가서 빵을 뜯는데 워낙 질긴 빵이라 생각보다 잘 뜯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손아귀에 힘을 주어 빵을 한움큼을 뜯어내는 순간 왈각 목이 막히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가 찢고 있는 것이 물론 빵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식으로 편리하게 미리 잘라져서 마련된 한조각 납작한 빵이 아니어서 제가 뜯어낸 빵 한움큼을 그 상앞에 서서 입에 넣고 씹는 한동안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제가 그몸의 찢기심때문에 구원얻은 죄인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큰 잔에 포도주를 따르면서 놀란것은 병에 담긴 음료는 포도주스가 아니고 레드와인 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평소에도 일체의 알콜을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상에서 진짜 포도주를 마주하게 된것 입니다.

기도하며 앞서 다른 성도들이 한대로 반잔을 채워 마셨습니다.

그렇게 삼킨 포도주의 기운은 순식간에 굉장한 속도로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권세가 이러하구나’. 성찬식의 붉은포도주는 그 효능의 속도와 효과 범위를 제가 통제할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끝과 발끝까지 그영향이 느껴졌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범위는 내가 동의하는 만큼이나 내가 내어주고 싶은 만큼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보혈의 영향이 내삶 구석구석까지 빠진곳이 없어야하고 전폭적이고 ‘내삶의 전부’ 이어야함을 배웠습니다.

### 3. 캐나다 이민국.

매월 최소 만명의 앞칸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방송사역에서 저와 아내의 역할의 중요성과 장기적인 사역의 필요때문에 팀의 리더십들과의 논의 가운데 저희는 2014년 2월, 약 15개월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신청당시 4년간의 캐나다근무 경력과 5.5를 요구하던 IELTS 영어점수를 6.5점을 제시했기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이민국은 2회이상 비자갱신을 금지하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회 비자 발급 기간중에 자격이 된다면 증명하고 영주권을 발급받던지 그렇지 않다면 오래 머물생각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와중에 감사히 저희는 미리 지난 2월에 3번째 비자를 갱신했습니다.

영국에서 앞칸국 형제들과 교체하며 영화더빙을 진행하던중 캐나다 이민국으로 부터 이메일로 영주권 거절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허가이외의 영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종교인비자를 발급받고 있었는데 제 업무내용에 영상촬영과 편집, 녹음등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도, 설교, 상담등의 종교인 비자의 허가 내용이 아니라는것입니다.

당장의 문제는 캐나다로의 복귀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민국의 ‘허가이외의 활동’이라는 문장은 때로는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추방명령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는 화상통화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한시간 반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어찌면 이번 거절 통보가 우리가족을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지 기도가운데 인도하심받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보통 동역자들이 부르심을 따라 대략 5년단위로 나라를 옮겨다니는것이 새삼스럽지않은 일이고 무엇보다 이민국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삿짐에 우리를 또다른 어딘가로 인도하실수도 있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대화중에 큰아들 현진이가 소리없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9학년 아들 현진이는 재즈기타 공부를 통해 최근 합계 \$5,600의 3가지 장학금을 따서 내년 1년간 험버음대 부설 주말 청소년 과정 학비와 2주간의 Youth Jazz Canada-캐나다 청소년 재즈 집중과정-을 전액 지원받아서 학비부담없이 재즈기타공부를 할수 있게 되었고 장학금중에는 험버음대에서 미리 현진이를 유치하기 위해 약속한 입학장학금 \$1000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여름에 가족이 나라를 옮기게 되면 현진이는 이 모든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것입니다.

현진이가 눈물을 떨어뜨리자 그때까지 담담히 이야기하던 아내가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직 엄마 아빠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자라나지 못한 어린 아들의 눈물이 이해도 되고 보기가 안스러웠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대화중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온가족이 함께 주님께로 마음을 모으며 정리할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산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것을 다 보고 계시고,모든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여름에

우리를 옮기신다면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길 믿기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영국에서 가족과 긴 영상통화를 한뒤 저는 영화더빙 기간동안은 팀에 이민국 상황을 보고한뒤 영국에서의 업무에 집중하고 잘 마무리 했습니다. 그 몇일사이 팀의 리더십들은 ‘현상황은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이민국의 오해에서 비롯했다’고 정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민국과의 오해를 풀고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에서 캐나다로 출발전날 영상회의를 통해 저희팀에서 고용한 캐나다의 변호사와 회의를 가졌고 만약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준비했습니다.

팀 내외의 많은 분들이 기도하여주시던 가운데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뜻밖에도 항공사에서는 비행기가 4 시간 연착되기 때문에 죄송하다며 한번 밥을 먹을수 있는 바우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도가 제법 넉넉한 10 파운드 바우처여서 느긋하게 공항의 초밥집에서 미소된장국에 초밥을 먹으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늦게 도착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토론토공항의 입국심사대에 도착했을때는 이미 새벽 1:30 이 되었습니다. 무사통과를 위한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디다. 다만 추방명령을 받는다면 급히 사역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될것이고 통과 시키신다면 당분간 계속 이곳에서 사역하라는 뜻인줄 여기기로 기도하며 심사대에 들어섰습니다.

캐나다의 입국심사대의 국경경찰은 만약을 위해 총기를 휴대하고 각종 비자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 영주권까지도 취소하고 추방할수 있는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밤중 1:30 분에 제가 국경경찰의 입국심사대에 서서 여권을 제출했을때 심사관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기본적인 질문과함께 여권과 비자를 스캔하고 확인하고 캐나다로 입국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계속 평소처럼 방송사역에 임하며 혹시 이민국에서 알려올지 모를 거절 90 일 이내의 인터뷰를 변호사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이민국과의 인터뷰에서 결정을 뒤집을 확율은 전혀 없고 설사 법원으로 상황을 끌고 가서 몇년을 소송에 쓰고 혹시 이긴다 하더라도 이민국의 ‘거절’ 결과를 바꿀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대안을 찾는것에 중점을 두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사역팀은 지금으로써는 최대한 저희가정이 장기적으로 방송사역을 이곳에서 동역할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최선을 다 하기로 사역팀 전체가 결정하고 할수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온뒤 아내와 저는 사역팀 전체 동역자들을 초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떡을 떼도록 대접했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제안한 몇가지 대안중의 최종 압축된 2 가지의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나다 오옴 선교회가 노동부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현재 제가 담당하는 사역인 다리어를 구사하며, 영상촬영, 편집, 작곡, 편곡, 음악(스튜디오)제작, 페르시아 전통악기 연주, 영화더빙, 찬양인도, 성경공부인도, 그리고 이모든 내용을 가능한 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캐나다 국민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한후에 없다면 정부에 외국인 고용신청-LMIA (노동시장영향평가) - 을 통하여 장기사역을 위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올해가 이나라 총리선거가 있는 해로 표를 의식한 정부는 최대한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위해 애쓰는 중이어서 발급확율은 사실상 20% 언저리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 변호사가 제시한 두번째 대안은 캐나다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 입니다. 캐나다는 어찌되었건 이민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인데 그간의 경험을 통해 가능한 고급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을 유치하기위해 캐나다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빨리 실제적인 가능성 확인을 필요로 하는 변호사의 부탁에 따라 과연 이 지역 신학 대학원에서 한국에서 서울예대를(전문대학) 졸업한 제게 기회를 열어주실지 확인해 보기위해 저는 침례교배경의 복음주의계통인 McMaster 신학 대학원에 문의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학사학위가 없는 저는 당연히 석사과정을 공부할수 없을것으로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McMaster 신대원에서는 12 년간의 선교사 사역경력을 학사학위대신 인정하여 MTS-신학전공과정에 입학을 허가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2 년간 앞만 보고 부르심을 따라 달려오다 보니 가끔 3 개월 정도 휴가차 한국에서 여름을 보냈던 것 말고는 안식년이나 재교육의 시간을 가진적이 없었습니다.

사역 특성상 종종 무슬림들의 꾸란과 하디쓰등을 조금씩 공부하다보면 정작 신학을 공부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지만 제 삶의 모든 선택권을 기꺼이 주님께 드린 삶 이기에 하나님께만 조용히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는 말한적이 없던 기도가 생각 났습니다.

이 내용을 방송사역 리더십들과 보고드리고 상의를했는데 이상황은 장기사역을 위한 선교사 재교육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것이 아닐까 라는 리더십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업능력 추천서를 페르시아어 문학 박사학위를 가지신 방송사역팀의 디렉터께서, 성품영역 추천서를 오옴 캐나다의 대표사역자께서 기꺼이 써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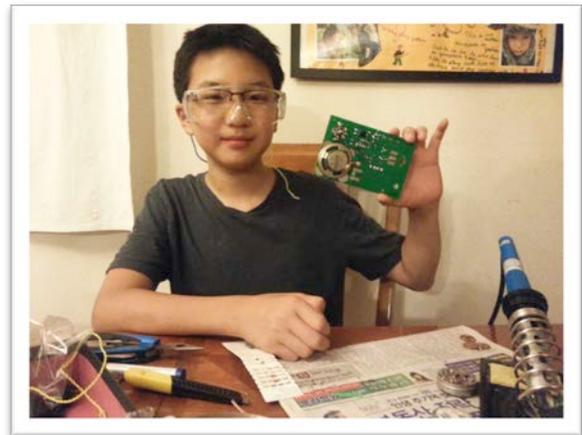
이후 석사과정 입학허가서가 발급되면 변호사는 가장 먼저는 90 일내에 벌어질 이민국과의 인터뷰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인도하심 가운데 설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현진이는 한가운데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편지는 상황이 계속 수시로 전개 되면서 지난 한달반 동안 계속 고쳐 쓰고 있는 중입니다. 현진이는 앞서 말씀드린 Youth Jazz Canada 의 2 주간 집중 과정을 잘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이나라 전역에서 선발된 (전공자 대학생들을 포함한) 40 여명의 청소년들중 9 학년 현진이가 가장 어렸다고 하는데 전설같은 교수님들께 칭찬받으며 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구리동전 라디오제작에 성공했던 회원이는 방학을 맞아서 그동안 별르던 AM 라디오 제작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의욕적으로 좀더 어려운 프로젝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수현이는 지난주 한주간 교회의 드라마캠프에 잘 참석했습니다. 키가 제일 작은 이유로 다윗역할을 맡아서 사진의 뒤에 보이는 골리앗을 주님의 이름으로 힘껏 무찔렀습니다.



이일 외에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저희 가정에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 인생의 작고 보잘것 없는 쪽배가 풍랑을 만나 위태로운 것 같은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배에 주님이 계시고 어찌면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무시건 깨어계시건 상관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부는 바람에 무서워 떨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다가는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두려워 하느냐?”라는 꾸짖음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주님 옆에 누워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폭풍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이 배를 버리고 풍량이 이는 바다로 나가자고 하시면 나갈 것이고, 다른 배를 타자고 하시면 다른 배를 타고, 그저 주님만 꼭 붙들고 따라가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든 주님이 계신곳에 있는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 입니다. 이여름에 오직 주님의 이름이 저희의 견고한 망대가 되고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 이전보다 더욱 단련된 정금 같은 믿음을 얻어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 가족이 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영국에서 더빙한 영화들은 제가 포스트 프리덕션을 진행했고 가까운 시일내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 4. 재정보고

지난해 까지 수년을 지원해 주셨던 네델란드의 동역단체가 지원을 중단한 이후 큰 폭의 재정부족이 예상되었지만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하여 주시는 (무순)목동제일교회, 부흥한국, 대구 아름다운 교회, 이름없는 교회, 구미신일교회, 월광교회, 분당우리교회, 토론도 한인장로교회, 런던한인교회, 코너스톤교회, 옥빌동신교회, 큰빛교회, 위니펙 중앙교회, 베테스타교회, IGC, 아시아미션, 데임악기, 이명경목사님, 이종화목사님, 대구의 무명장로님, 행복비전교회, 소망회, 김영민님, Allan Hoffman, Hedlin Irene, 그리고 올해 부터 새로이 후원을 시작하여 주신분들-최도형, 김근모, 김두홍-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정은 필요한 분량의 약 2/3 가량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한번도 저희에게서 눈을 떼신적이 없이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덕분에 한번도 모자르거나 부족한적 없이 지금껏 잘 지내오게 해 주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 입니다.

또한 그 동일하신 아버지께서 앞으로는 늘 저희를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고 풍랑속 쪽배같은 매일의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먹고 마시며 또 편히 쉬며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께 기쁨되길 소망하여 오늘도 마음속으로 주님만 크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에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어 맑은때나 폭풍때나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년 7 월 27 일

연은혜, 연하늘-현진, 희원, 수현 가정 올림.